

[로스쿨 합격기]

## “마음이 깊으면 꽃이 핀다”

### 박 세 희

- 1986년 1월 생
- 영신고등학교 졸업 (04년)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08년)
- 공군 중위(사후 121기) 전역 (11년)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 (12년)



#### I. 로스쿨진학을 결심하기까지 -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

입시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뜻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실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어느 모로나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면서 뜻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현역 장교로 복무하는 와중에 로스쿨 입학 준비했습니다. 매일 처리해야 할 기본업무가 있고, 야근이나 회식 같은 비정기적인 일과 후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각종 행사나 훈련 등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업무로 인해 받는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컸기에, 때때로 입시를 내년으로 미루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 품은 뜻 하나를 되새기며 꾸역꾸역 발을 내딛었습니다.

설령 내년에 다시 준비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완주하는 것과 기타 여러 핑계로 중도 포기하는 것은 혹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LEET 준비기부터 12월 합격자 발표까지 대략 1년에 가까운 입시 기간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왜 로스쿨에 진학하는가?”, “나는 왜 법조인이 되려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스쿨에 대한 각종 풍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올지 모르는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답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온 답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답인지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에 임할 때는 이러한 지원동기가 타인을 설득할 정도의 수준인지도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항상 “풀뿌리 지역운동에 뜻을 두고 있다”라고 대답했던 저에게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부 때 법학 과목을 수강한 적도 없고 법조계와 아무런 인연도 없었기에 로스쿨 진학은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저에게 한 친구가 『민법입문』(양창수 저, 박영사)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더뎠지만, 분명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법학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단 번에 무너뜨리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 교양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자세한 책 목록은 「VII. 추천도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저에게 법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지적 감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풀뿌리 지역운동에 매진하는 공익변호사’라는 미래상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 II. LEET

### 1. 준비기 - 짧지만 강렬했던 2개월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자신을 객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스펙(정량요소)이라고 하는 잣대로 제 자신을 평가해 본 것입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연세대 로스쿨은 학점(GPA), LEET, 공인영어성적을 1:1:1로 반

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목표는 로스쿨 입학 그 자체였지만, 이왕 로스쿨에 간다면 모교 로스쿨로 진학하고픈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에서 밝히겠습니다.

이미 졸업한 상태라 학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학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서류에서 지원자의 학부 성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구분해서 학점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부연하라는 식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이중 전공했는데, 이 두 학문을 선택한 이유, 제가 받은 학점에 대한 정당화, 학점이 특별히 낮은 학기에 대한 변명 등을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됐습니다.

LEET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했지만, 실제로 시간적 여유가 얼마 없었습니다. 저에게 로스쿨 진학을 강력히 권했던 친구는 이미 지인들과 함께 LEET 스터디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막상 진학을 결정하고도 LEET 준비를 시작할 수 없었던 저에게 친구는 “너는 지금부터라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마법과 함께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도 충분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일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기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공부를 병행한다는 일명 셀러던트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퇴근 시각도 일정치 않고 예상 밖의 야근이나 회식을 하게 될 경우 또는 출장을 다녀올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는 토, 일요일 이틀을 최대한 활용하되, 평일 저녁은 덤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토, 일요일을 보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첫째 주말부터였습니다. 잠을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잔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 일찍 일어납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침 8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 도시락 2개를 짹째 싸서 인근 대학 독서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에 기출문제 1세트를 풀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1세트를 풀고 저녁을 먹고, 밤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주로 LEET기출문제(09예비부터 11년도)와 입법고시·행정고시 PSAT기출문제(최근 3개년)를 풀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몇 시간 동안 영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으려니 좀이 쑤셨습니다. 금요일 밤을 푹 쉬지 못한 날이면 오전에 꾸벅꾸벅 즐기 일주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식곤증이 찾아왔습

니다. 문득 시험당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2011년 2월 치렀던 PSAT에서도 2교시, 3교시를 줄음으로 망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LEET는 당일 컨디션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험입니다.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토, 일요일 이틀 만이라도 시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는 졸지 않고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간대를 넘어가면 적당히 즐기기도 하고 독서실을 나가 체조도 했습니다. 지루할 때는 기출문제를 밀쳐두고 언어이해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2~3주가 지나면서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출을 풀 때는 당연히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야 합니다. 보다 압박도가 높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분 정도 부족하게 시험시간을 설정하길 추천합니다. 저는 기출을 풀면서 각 영역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쉬운 지문을 먼저 푸는 전략은 솔깃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문이 쉽게 느껴져도 문제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내가 이 지문을 건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데다가, 시간을 들여 내린 판단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집 몇 권 풀다고 단기간에 성적이 나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 즉 우리말 및 한자어 문제에 대비해 따로 책을 보며 정리했을 뿐 시중의 언어이해 교재를 구해서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출을 제대로 보는 데만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추리논증의 경우는 다릅니다. 단기간이라도 제대로 대비하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조호현의 추리논증』을 풀면서 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게임'에 특히 약했고, 답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요령껏 뒤로 미루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호논리'의 경우에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기에, 비록 한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연습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했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라 아닌 논리력을 키우는 공부라고 생각하니 동기부여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LEET 기본서나 문제집을 보지 않았고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나 쉬는 시간에 요긴하게 활용할 요량이었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면 자신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LEET는 문제별로 난

이도가 다르더라도 배점은 같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고 실수를 줄일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출문제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자신의 약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2. 시험 당일

항상 시험 당일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공부했기에 크게 긴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디.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되기에 따로 진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디. 약 두 달 간 매주 주말 이틀을 보내던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었기에 더욱 편안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침도 늘 먹던 평범한 식단으로 먹었고, 점심 도시락도 자주 먹던 음식, 충분히 검증된 음식으로 채웠습니디. 시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디. 책상과 의자가 편했고 간격도 널찍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디.

1교시가 시작됐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지만, 첫 네 문제가 호락하지 않았습니디. 시간을 투입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었기에 모두 포기하는 마음으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갔습니디. LEET가 스피드 테스트가 아닌 파워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점수대에서는 스피드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문이나 문제에 골똘히 파묻히는 경향이 있기에 시간관리를 위해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걷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지금 달릴지 아니면 좀 더 걸을지 등을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두 지문의 경우에는 거의 날듯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안 마킹까지 모두 끝낸 뒤에 맨 앞 장으로 돌아가 문제 네 개를 찍다시피 풀고 답안 제출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머리를 식혀주기 위해 고사장을 나가 복도 맨 끝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봤습니디. 언어이해 지문 자체가 워낙 재밌었기에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한 불안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끝난 일, 건물 앞에 조성된 녹지대를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디. 가져간 오답노트를 건성으로 넘기면서 차분히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후리논증도 시간관리에 신경 쓰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앞서 서술했듯 논리게임 문제는 뒤로 미루었고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디. 아리송한 문제도 많고 결국 시간이 부족해 대여섯 문제는 호기롭게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제대로 풀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디. 시험을 치는 도중에는 이런 자기 긍정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점심을 먹고는 논술을 풀었습니다. 평소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걱정은 했지만, 몇 가지 팁은 익혀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개요를 잘 짜야한다. 둘째, 정해진 분량은 반드시 넘겨야 한다. 셋째, 두괄식으로 써야한다. 넷째, 글씨가 좋아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2번 문제를 답안을 작성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가까스로 1,400자를 넘기고 시험을 끝냈습니다.

### 3. 논술

주위 친구들과 저의 입시를 복기하면서 저의 논술 답안이 상당히 특이하다는 평을 들었고 저 역시도 결과적으로 제가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유일한 항목이 논술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씁니다.

로스쿨 준비생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과목 준비하기도 바쁜데 논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논술을 등한시하거나, 정량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LEET 논술 과목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논술 채점은 각 학교의 몫이므로 오히려 변별력이 있으면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1차 전형 80점 만점에서 논술에 10점을 배당하여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논술에서는 문제에서 답하라고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좋은 글이 되려면 단순히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읽더라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음이 또렷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글을 두괄식으로 써야하고, 전체 구성 역시 이에 맞게 신경을 써야합니다. 기출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LEET 논술 1-(1) 문제는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찾아야 할 정보는 (가), (나) 각 글의 논지 및 이 두 논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제시문 (가), (나)는 아테네 민회의 한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연설문입니다. 개요를 짤 때, 두 논지를 간략히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뽑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글의 구성은 당연히 두괄식이 되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두 논지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념화해서 언급합니다. 본론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세 설명을 논거로써 덧붙입니다. 결론은 상술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2) 문제의 경우는 좀 생소한 형식의 문제였지만, 정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논제이기도 했습니다. “제시문 (나)의 주장과 같은 결론을 동의

하되, 다른 이유에서 동의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문제를 읽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점은 이 글은 연설문이므로 구어체로 쓰되, 논설문보다 강력한 수사와 호소를 사용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 (나)를 유의 깊게 읽고 어투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시문 (나)의 주장과 이유를 분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되, 다른 이유를 갖다 대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즉석에서 ‘다른 이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편리를 위해서 다음의 두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제시문 (가)의 이유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시문 (나)를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틀 지으면서 그 대립항으로서 ‘정의’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제시문의 배경’을 심본 고려하여 글 자체가 이리저리로 튀지 않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가령,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후대의 철학자나 이론가를 실명거론하면서 인용하거나 후대의 일화를 참조하거나 한다면 글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채점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연설문이므로 시의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시의 시대상과 아테네라는 공간적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모든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요를 짜는데 많은 시간을 할당해야 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III. 공인영어성적

#### 1. TOEIC

6월부터 9월까지 총 3회 시험에 응시했고 마지막 9월 시험에서 가까스로 원하는 점수를 넘겨 무사히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좀 무식하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실전문제집을 구해서 풀었습니다. 출근 전과 퇴근 후로 나누어 각 1세트씩 하루에 총 2세트를 푸는 것을 목표로 했고, 풀고 나서는 파트별로 틀린 개수를 집계해서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인영어성적은 가급적 LEET 준비에 앞서 만들어두는 편이 전체 입시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이 는다는 기쁨은커녕 시험 요령이 는

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스터디를 했다면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 혼자 책상에 앉아 고독감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들께서는 부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길 권합니다.

## 2. TEPS

LEET 점수를 받고 난 뒤에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으로 접근했고 많은 욕심 부리지 않고 지원자격인 701점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TEPS는 TOEIC과 상당히 다른 유형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유형을 파악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고 다른 준비는 더하려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1일 마지막 시험에 응시했고 간신히 원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 IV. 자기소개서 - 일관성, 논리성, 진정성

LEET를 치루고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진학의 의지는 확고했기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지만, 추상적인 의지를 활자로 옮기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휘 선택이나 표현의 수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자니 한 자 한 자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9월이 되어서도 TOEIC 점수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썩여했고, LEET가 끝나자마자 인터넷을 통해 꾸려진 면접스터디에 합류했기 때문에 거의 쫓기다시피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공인영어성적은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만약 목표하는 학교가 분명하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구해 미리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자신만의 이유'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접수 마감 전주에 간신히 자기소개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누차 반복 강조하는 자기소개서 첨삭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로스쿨 제학 중인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봐준 지인들 덕분에 자갈한 어휘 수정은 물론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 역시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첨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취사선택했습니다.

저는 '풀뿌리 지역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과 '로스쿨'이라는 도구를 연결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성장배경」과 「대학생활」 항목을 통해 제가 비전



을 갖게 된 과정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학생활에는 제가 가진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강했던 과목이나 참여했던 과외활동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이때 욕심이 앞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하는 식으로 무작정 나열해서는 곤란합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 ‘목적론적’으로 써야합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일에는 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지(一以貫之)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지원동기」에서는 제도의 근간은 ‘법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입법자가 되기 위해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날로 성숙해지면서 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에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다고 썼습니다. 또한 연세대 로스쿨이 특성화하고 있는 ‘공공거버넌스와 법’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연세대 로스쿨은 서대문구청과 연계하여 리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성’과 연세대 로스쿨이 소재하고 있는 서대문구 신촌동이라는 ‘지역성’을 엮어서 썼습니다. 서대문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지역운동’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도 부연했습니다.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은 요구량을 채우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은 만큼, 가능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업계획의 경우,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참고하면서 입학 1년차, 2·3년차로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나아갈 바가 뚜렷했기 때문에, 진로계획을 고려하면서 교과목을 골랐습니다. 실무수습이나 과외활동 부분 역시 공익변호사라는 지향에 부합하도록 썼습니다.

진로계획의 경우는 단기(졸업 후 5년 내), 중기(졸업 후 10년 내), 장기(졸업 후 20년 내)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내용을 쓰기 보다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위주로 썼습니다. 주위 친구들로부터 “(흔히 보수적이라고 하는)법대 교수님들이 보기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지만, 저는 솔직하게 써야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얻든 뒷날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인성면접을 따로 보지는 않지만, 혹여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을 받는다 해도 열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일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철학을 받을 때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

는 이유, 로스쿨이 저를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었지만 강력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애깁니다.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1차 전형 80점 만점에서 25점을 서류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정량과 논리성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에도 불구하고 1차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V. 면 접

“자기소개서는 침삭, 면접은 스테디”라는 공식이 일반적이었기에 저 역시도 면접은 스테디를 꾸려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말 밖에 시간이 나지 않았기에 어렵사리 주말에만 모이는 스테디를 찾아 합류했습니다. 스테디 구성원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면접 준비 자료를 얻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스테디가 해체됐습니다.

딱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면접대비반을 개설하고 있는 고시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0월 3주차에 수강하여 면접 직전까지 약 4주 동안 주 2회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반에 8~10명 남짓 되는 수강생이 있었고, 강사님께서 시사이슈 중 법적인 논쟁이 가능한 것들을 추려 간단한 개괄을 해주셨고 강의 후반부에는 찬성과 반대를 나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법학사로서 법학적 기초가 전무한 상태에서 ‘비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같은 법학 용어를 어설피 익히기보다는 논리력과 발표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세대 로스쿨 면접장에서 문제지에 “법률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는 참고사항을 보고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학원 강의가 없는 날에는 수강생끼리 면접스터디를 했습니다. 강의 때 다뤘던 문제를 복습하기도 하고 기타 시사 이유를 새로이 쟁점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으며 스테디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고 강평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의 속도나 강세, 세기, 시선처리 등을 다듬을 수 있었고, 점차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면접 전날까지 2박 3일 간의 전역 기념행사가 있어 경남 진주에 다녀와야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군인의 신분이었기에 그저 주말을 활용해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면접은 오후조였고 순서가 거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지치지 않기 위해서 쪽잠을 청하기도 하고 갖고 간 자료를 보기도 하면서 컨디션에 신경을 썼습니다. 대기 장소에서 아는 얼굴 몇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 덕분에 오히려 긴장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자 면접장으로 이동했고 면접장 앞에 준비된 의자에 앉아 약 13분 간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받자마자 느낀 점은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답변과 이에 대한 교수님들의 추가 질문을 예상하며 머릿속으로 공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딜레마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변호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참신한 논리가 떠오른 방향으로 입장을 골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중대한 실수가 없었고 면접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기에 무난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조의 막바지라 면접관들의 집중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점심은 챙겨먹었는지 여쭙어주시는 등 친절히 응대해주시고 제 답변에 귀기울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 신이 나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 VI. 마치면서

저의 로스쿨 입시는 마치 호랑이 등에 매달린 채 달리는 형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달리기로 결정하자 주위에서 호랑이 다리를 마련해주었고 덕분에 짧은 기간에 과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즉시 잡아먹힌다는 두려움으로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합격으로 보답하라”며 조건 없이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 참으로 많았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 분들이 마련해 준 호랑이에 올라타 죽자고 매달린 것뿐이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 발표일 오후, 여기저기서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정작 축하를 받는 제 마음은 마냥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 대한 비판론적 전망이 난무했고 학비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다시 3년을 오롯이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신히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가 싶었는데, 더 무시무시한 호랑이 등에 매달려 최소 3년을 내리 달리게 됐습니다. 마음은 기쁘게 머리는 걱정이 가득한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로스쿨이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조인을 고소득 기득권층으로 한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로스

쿨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법조계도 양질전화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참가했던 ‘로스쿨지망생들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생들 스스로가 “뚜렷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로스쿨에 진학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 “나는 왜 로스쿨에 진학하는가?”, “나는 왜 법조인이 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시의 가시적 목표는 합격입니다만, 합격이 곧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깊게 품으면 1년 남짓 되는 입시 기간에도 입학 후 최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지지치 않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으면 꽃이 핀다.” 이 글은 읽는 여러분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하며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VII. 추천도서

### 1. 법학 교양

- 양창수, 『민법입문』
- 이상수, 『교양법학강의』
-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석지영, 『법의 재발견』
- 김두식, 『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
- 김욱, 『법을 보는 법』
- 박성철, 『헌법줄게 새법다오』
- 금태섭, 『디케의 눈』
-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 서형, 『법과 싸우는 사람들』

## 2. LEET 및 논술

- 조호현, 『조호현의 추리논증』  
이광호·정강혁·박신현, 『도해식 PSAT 3개년 기출해설집』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앤서니 웨스턴, 『논증의 기술』  
줄리엔 바지니, 『가짜논리』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 팀, 『우리말 나들이』  
김경원·김철호,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이성복, 『한국어 맛이 나는 쉬운 문장』  
EBS 지식프라임 제작팀, 『지식프라임』  
이중텐, 『백가쟁명』  
에른스트 페터 피셔, 『또 다른 교양』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앨리엇 소버, 『생물학의 철학』

## 3. TOEIC, TEPS

- ETS, 『ETS TOEIC Reading/Listening Prep Book』  
김학인 등, 『토마토 TOEIC Finish 1000제 Reading/Listening』  
해커스,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Reading/Listening 1, 2』  
김태희 등, 『It's TEPS 900+』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월간 Teps』

## 4. 자기소개서 및 면접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앨런 더쇼비츠, 『미래의 법률가에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최규호,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속 이야기』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